chudosa.com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하관의 자리에서, 군복무에 대한 예우와 함께 아버지 이태성, 우리에게는 ‘아버지’이자 많은 이들에게 ‘이 선생님’으로 기억될 분을 정중히 보내드립니다.

아버지는 1949년 2월 8일에 태어나 2026년 4월 10일, 향년 77세로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20년간 군에서 나라를 지키셨고, 제대를 한 뒤에는 중학교 체육교사로 18년을 아이들과 함께 뛰며 가르치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마을 체력교실을 운영하시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돌보셨고, 지역 마라톤 대회를 꾸려 공동체가 함께 달리고 함께 숨 쉬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정직과 절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태도, 그리고 약자의 편에 서는 용기. 아버지의 삶은 이 가치들을 조용하지만 분명한 걸음으로 증명한 길이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그 엄격함의 바탕이 사랑이라는 것을 시간이 흐를수록 알게 해 주신 분이었습니다. 제 졸업식 날, 사람들이 붐비는 운동장 한가운데서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고 “네가 자랑스럽다”라고 아주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과장이 하나도 없는, 아버지다운 그 한마디가 제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그 손의 온기와 말의 무게를 떠올립니다.

아버지는 곧은 자세와 단정한 미소를 가지셨습니다. 겨울 새벽마다 끓여주시던 미역국은 말없이 건네는 격려였고, 뒤에서 묵묵히 지켜주는 든든함은 우리 가족의 일상에 깔린 바탕음 같았습니다. 정원을 가꾸며 계절을 읽으셨고, 도자기를 빚으며 마음을 다스리셨습니다. 아침 라디오를 들으며 세상 소식에 귀 기울이셨고, 동네 걷기 모임에서는 먼저 걸음을 맞춰 주셨습니다. 체육교육과 청소년 지도, 안전한 운동습관을 전파하던 그 손길이 있었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오래 달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는, 배우자 한선영 여사님, 자녀 이소라와 이현우, 그리고 네 명의 손주들과 함께 아버지를 기억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날마다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몸을 먼저 세우면 마음도 선다”, “규칙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은, 집에서도, 운동장에서도 같았습니다. 그 일관됨이 우리에게 공정함의 모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면에 드시는 이 순간, 군복무에 대한 예우 절차와 함께 고개를 숙입니다. 한 사람의 군인으로,

교사로, 이웃으로, 아버지는 앞에서 소리치기보다 옆에서 걸음을 맞추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우리는 그 보폭을 기억하고, 서로의 속도를 살피며 걸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chud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

화환 대신 이웃을 돕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기리고자 한 유가족의 뜻에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라면 그렇게 하자고, 조용히 웃으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선생님. 이제 흙으로 돌아가시는 이 길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남은 자리에서 약속을 잇겠습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일, 정직을 선택하는 일, 공동체를 위해 먼저 움직이는 일. 그리고 사랑한다는 말을 때로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건네는 일.

아버지,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지켜 주던 새벽처럼, 우리도 서로를 지키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 우리는 아버지의 곧은 미소와 따뜻한 손을 기억하며, 여기에서 계속 걸어가겠습니다.

이 추도사는 chudosa.com에서 작성되었습니다.몇 가지 질문에 답하고 지금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를 생성하세요chudosa.com

chudosa.com에서 나만의 맞춤형 추도사 작성